

# 아시아태평양 문화체험단 남원관광

### 11개국 대학생 및 일반인 50여명 아리랑 공연 관람·판소리 배우기 등

남원시는 아시아태평양 청년문화체험단 50여명이 관한루 600년을 맞아 남원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체험단은 TPO(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

구의 관광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남원을 방문하는 것이며, 중국, 말레이

시아, 베트남 등 11개국에서 대학생 및 일반인 50여명이 참가해 10박 11일 일정으로 남원을 비롯한 안동, 대구, 전주를 체험한다.

남원에서는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 동안 대한민국 대표정원 관한루원에서 한옥자원활용 창극 남원 아리랑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을 관람하고, 판소리 따라 배우기, 한복 체험, 허브제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주요관광지를 관람하였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남원에촌에서 숙박하면서 전통문화의 도시 남원만의 매력을 맘껏 느끼었다.

남원시 관광관계자는 "참가자들의 투어를 통해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남원관광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개인 SNS를 통한 해외 현지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아시아태평양 청년문화체험단 50여명이 관한루 600년을 맞아 남원을 방문했다.

# 순창 발효소스토굴, 장 역사 전시관 새단장

### 평균 18도 유지... VR 등 다양한 콘텐츠 구축해 무더위 피서지로 각광

순창 발효소스토굴이 무더위 피서지로 큰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최근 장(醬)의 역사에 대해 한 눈에 알 수 있게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순창발효소스토굴은 순창을 백산리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에 위치한 길이 134m에 최대폭 46m인 대형 저장고로, 최근 VR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며 순창군의 대표 문화관광명소다.

발효소스토굴이 VR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이 고조선부터 현대시대에 이르기까지 장(醬) 역사에 대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전시관을 새롭게 구축해 방향을

맞은 학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장(醬)의 기원은 유교경전인 '논어' 향당편을 통해 "공자는 음식 씹는 것이 바르지 않으면 잡숫지 않으셨고 장이 없으면 식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글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고조선과 삼국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면서 장의 근본 기술인 발효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순창군이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이번 전시관 구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현재 순창군은 장류의 근본 기술인 발효분야를 적극 활성화시키며 발효 미생물산업화지원사업과 장내유용미

생물은행 건립 등 관련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전시관외에도 발효소스토굴내에 미디어아트 체험공간과 대형 저장고, 트리아트를 활용한 포토존 등도 조성돼 있어 방문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발효소스토굴내 실내온도가 18도를 유지하면서 시원한 피서지를 찾아 토굴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늘고 있어,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육공간인 동시에 부모에게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응급서비스 제공 인력 안전교육 실시

남원시는 7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18개소 대표자 및 제공 인력 5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소방서 협조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화재예방을 주 내용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완강기 사용법 숙지 등에 대한 교육과 제공인력의 실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공기관 관계자 박모(39)씨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많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꼭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유익했으며, 이용자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이웃까지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현혈 75회 남원시 공무원 화제

### 박대인 주무관, 조카에게 도움줬을 때 보람 100회 채워 현혈 유공장인 '명예장' 포부 밝혀

남원시 공무원인 박대인(홍보전산과 근무)주무관이 현혈 75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주무관의 75회 현혈은 7일 남원시청 주차장에서 진행된 현혈 행사에 참여하게 되며 달성한 것으로, 박 주무관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현혈에 나선 것이다.

75회 현혈이면 1회 현혈로 400ml(미리리터)의 피를 뽑게 되니, 지금까지 총 30리터의 피를 내었다는 이야기이며, 혈액은 전체 몸무게의 7~8% 가량을 차지하며, 그 양은 60~70kg 체중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약 5.1(리터) 정도 되며, 이 중 약 1/3이상을 잃을 경우 과다출혈로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한다.

주인공인 박 주무관은 현혈 동기에 대해 "고교 시절 수업에 들어가기 싫어서 시작했던 현혈이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영화보고 싶고 책 사고 싶고, 공강 시간에 할 일이 없어 별 생각 없이 현혈을 계속 하다 보니, 현혈 유공장은



장(30회), 금장(50회)도 받게 됐다"며 장난스럽게 현혈 시작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 주무관은 7살인 둘째 조카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임을 알았을 때 더욱 혈액의 소중함을 절감했다며, 모아놓은 현혈증서가 조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현혈의 보람을 느꼈다"고도 밝혔다.

이어 박 주무관은 기회가 되는대로 현혈에 나서고 싶었던 박대인 주무관은 "어느덧 75번째 현혈을 이루다보니 꼭 100회를 채워 현혈 유공장인 '명예장'도 받아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올 해 2번째 열린 남원시 사랑의 현혈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자신의 피를 나누는 봉사를 실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 귀농 창업·주택 구입자금 지원

남원시는 예산 46억원을 확보하고, 초기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농업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20명을 선발했다.

금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확보예산은 46억원으로 귀농인들의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청현황을 보면 연령별 분포가 50대가 47%로 가장 높았고, 30대 34%, 40대 14%, 60대 이상 5%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의 증가와 청년들의 농업 인식 변화 등이 주원인으로, 농촌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로 붕괴되고 있는 농촌 현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으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창업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3억원까지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이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최대 7천5백만원 한도 내 주택신축·구입을 지원하는다.

배세근 남원시 농촌활력과장은 "남원시에서 제2의 인생을 위해 정착한 귀농인들의 꿈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영농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성공 귀농인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미세먼지 없는 '청정임실' 구현

### 탄소포인트제, 올해 2300여 세대 4000여만원 지급

임실군이 미세먼지 없는 '청정하늘'을 위해 탄소포인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제1종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일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주범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중국 등에서 유입하기도 하지만, 우리주변의 공장, 발전소, 자동차의 매연 등,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주로 발생된다.

이에 임실군은 노후경유차(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자동차(전기) 보급, 매연 저감장치(DPF) 설치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 발맞춰서 주민들의 전기사용량 감축을 유도하여 감축량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란 각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하면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하면 반기별로 1년에 2번 정산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한 세대당 최대 2만원의 임실사랑상품권, 쓰레기봉투 등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상·하반기 2300여 세대에 4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군은 올해 현재 5400여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군청 환경보도과,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전기 사용량 납입고지서 지참)하여 참여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군은 전북도가 주관한 '2018 저탄소생활 실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비롯하여 무려 5개 부문의 상을 휩쓸며 명실공히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일번지'로서의 임실군의 자리의 보여준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김형우 임실부군수

### 태풍대비 현장 점검 펼쳐

임실군은 제9호 태풍 레기마와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하고 있어 관내 주요관광지 현장 점검하는 등 태풍 피해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쳤다.

김형우 임실부군수는 지난 6일 임실 치즈테마파크 내 아쿠아페스티벌 행사장과 사계절 장미원 조성공사 현장 등 안전 취약지역을 방문해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날 김 부군수는 "두 개의 태풍이 경로를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지역별로 100~200mm의 많은 강우가 예상되는 만큼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도로침수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발생 및 현장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주민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 점검, 취약지역 예찰 등 폭염대책에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